

## 언어순화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지명\*

『문화어학습』 내용을 중심으로

서민정\*\*

이 글에서는 북한 지명의 명명법에 대해 검토하고, 더 나아가 그것이 언어 순화 운동과도 긴밀히 연동되어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북한에서는 우리말에 남아 있는 일본어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해방 직후부터 언어순화 운동을 전개했다. 이 운동에서는 일반용어와 전문용어가 전반적으로 순화의 대상이 되었는데, 지명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언어순화라는 주제하에서 북한의 지명을 고찰하는 연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행정구역 개편과 지명조사사업의 개요에 대해 서술한 다음 북한의 대표적인 어학 잡지 『문화어학습』에 실린 지명에 관한 글을 분석했다. 1968년부터 2017년 사이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지명 관련 기사의 전반적인 현황을 정리하고, 지명이 명명되는 방식을 분류하여 기술했다. 이를 통해 북한의 언어순화 운동이 지명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했다.

키워드: 북한 지명, 언어순화, 문화어학습

\* 이 글은 2019년 8월에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된 제14차 KOREA학 국제학술토론회에서 발표한 발표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이 글에 쓰인 인용문은 원문의 맞춤법 그대로 표기하였다.

\*\* 게이오대학교 강사.

## 1. 들어가며

이 글은 북한의 지명을 언어순화의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다. 북한에서 언어순화는 해방 직후부터 우리말에 남아 있던 일본어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북한 문헌에서 지명은 정리해야 할 대상이 되는 어휘 부류에 해당하며,<sup>1)</sup> 언어순화의 대상이 되었던 어휘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언어순화의 대상이 되는 어휘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주로 일반용어와 전문용어만을 다루는 것이 대부분으로, 지명이 언어순화의 분석 대상이 되는 경우는 없었다.

북한의 지명은 언어순화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명조사사업과 말다듬기운동이 같은 시기에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사실 북한에서 언어순화운동은 해방 직후부터 시작되었는데 전국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시기는 1966년 이후이다.<sup>2)</sup> 지명조사사업 또한 같은 시기에 진행된 것으로 본격적인 지명의 순화가 시작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둘째, 일반적인 언어순화의 원리가 지명의 순화에도 동일하게 작용하였다는 점이다. 간단히 정리하면 언어순화란, 우리말에 남아 있던 ‘외래적 요소’를 가능한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쓰자는 것인데 이러한 원리가 지명에도 적용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북한의 지명의 순화를 1960년대 중반에 행

---

1) 박상훈·리근영·고신숙, 『우리나라에서의 어휘정리』(1986)에 의하면 특수한 어휘 부류로는 ① 고장 이름의 정리, ② 어린이 이름 짓기, ③ 품종 이름 짓기가 있다.

2) 이 시기에 시행되었던 언어순화운동의 일환인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서민정, “『로동신문』의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 분석,” 『현대 북한연구』, 제17권 1호(2014)를 참고하였다.

해졌던 북한의 언어순화운동의 일환의 하나로 보고, 바꾸어야 할 지명과 새로 지은 지명에 대해 언어순화의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이 되는 자료는 당시 북한의 언어순화운동을 뒷받침해 주었던 어학 잡지 『문화어학습』에 실린 지명에 관한 글이다.

## 2. 선행연구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지명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이희승(1932)의 “지명 연구의 필요”로 알려져 있다.<sup>3)</sup> 국어학자인 이희승은 고어를 가장 충실하고 풍부하게 제공하는 것이 지명이라 하였다. 그는 지명은 토지와와의 고착성이 가장 강하고,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였는데 이는 지명의 역사성, 유연성(有緣性), 보수성이라는 지명의 특성에 대해 언급한 듯하다. 또한 『삼국사기』 지리지에 나온 일부 지명에서 우리말의 어원을 추적하며 지명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제기하였다.

지명은 국어학·언어학·지리학·역사학 등 각종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는데, 한반도에서는 국어학 분야에서 가장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sup>4)</sup> 그 이유에 대해 주성재<sup>5)</sup>는 지명 생성의 유래와 변화의

---

3) 이희승, “지명 연구의 필요,” 『한글』, 제2호(1932).

4) 이돈주, “땅이름(지명)의 자료와 우리말 연구,” 『지명학』, 제1권(1998), 164쪽에 의하면, 지명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지명학(toponymy)은 연구자의 관심과 시각에 따라서는 방언학 외에 지리학, 역사학, 고고학, 민족학, 민속학, 사회학, 정치·경제학, 설화·구비문학 등의 연구자에 이르기까지 빼놓을 수 없는 보조학문의 자료가 된다. 여기에 지명의 가치가 있고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5) 주성재, “유엔의 지명 논의와 지리학적 지명연구에의 시사점,” 『대한지리학회지』, 제46권 4호(2011), 443쪽.

과정, 그리고 우리말 이름의 한자어 차용 등을 언어학적으로 추적, 정리하고 일반화 및 이론화하는 일이 중요한 연구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라 분석하였다.<sup>6)</sup> 도수희<sup>7)</sup>는 지명도 엄연한 언어이기 때문에 지명 연구의 최적격자는 언어학자이고, 한국의 지명을 연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의 소유자는 역시 국어학자일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남한에서의 지명 연구는 국어학에서의 언어적 관점으로부터 시작되었다가 점차 문화정치적 사례 연구<sup>8)</sup>나 지명의 변화를 정치지리학적으로 해석하는<sup>9)</sup> 등 지리학에서도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남한에서 북한 지명에 대한 연구는 그렇게 많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 또한 주로 국어학이나 지리학계에서 다뤄지고 있다. 북한의 행정구역개편과 그 지명의 특징에 대해 분석한 연구로는 김영배<sup>10)</sup>, 이영택<sup>11)</sup>이 있다. 이들은 고유어로 된 행정지명에 대해 소개하며 이는 매우 특징적이라 분석하였다. 북한을 바로 이해하기 위한 방안으로 북한 지명을 분석한 최석주<sup>12)</sup>는 북한 교과서에 나오는 지명을 학년별, 영역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지명분포 빈도를 조사하고 이에 따른 북한 지명의 특색과 변화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 밖에 개성지역을 사례

---

6) 주성재는 “유엔의 지명 논의와 지리학적 지명연구에의 시사점”에서 1990년대 이후 이루어진 한국의 지리학 분야의 연구동향에 대해 정리하였다.

7) 도수희, “지명 연구의 새로운 인식,” 『새국어생활』, 제4권 1호(1994), 23쪽.

8) 김순배·류제현, “한국 지명의 문화 정치적 연구를 위한 이론의 구성,” 『대한지리학회지』, 제43권 4호(2008).

9) 지상현, “지명의 정치지리학: 행정구역개편으로 인한 시 명칭 결정을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8권 3호(2012).

10) 김영배, “북한의 지명,” 『새국어생활』, 제4권 1호(1994).

11) 이영택, “북한의 지명변화와 지명의 유형,” 『아세아연구』, 제37권 1호(1994).

12) 최석주, “북한의 지명 연구 : 북한 지리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2호(2003), 235~251쪽.

로 북한 지명의 문화적 특성에 대해 분석한 이영희<sup>13)</sup>가 있다. 김기혁<sup>14)</sup>은 분단 이후 북한의 지명 정책을 살펴보고 북한 학계의 지명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것으로 북한 체제 안에서 정치 이념의 변화에 따라 지명이 어떻게 변하고 해석되고 있는지에 대해 밝히고자 하였다. 그는 북한의 잡지 및 논문 등의 자료를 분석하였는데 지명 연구가 주로 북한의 언어학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1990년대부터 지명을 주제로 한 학위 논문이 배출되면서 지명의 연구 추세는 다른 양상을 보이거나 아직 영향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이는 “지명 연구가 주로 언어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명의 유래가 단순히 이두 등을 이용한 언어학적으로만 설명되고, 지리학적 특성을 간과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고 하였다.

최진무 외<sup>15)</sup>에서는 과거의 북한 지명과 현재의 북한 지명을 비교분석 하여 북한식 지명을 고유지명으로 복원하는 방법에 대해 제시하였다. 사례로 평성시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약 30% 정도는 구한말 지명으로 복원이 가능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변영수<sup>16)</sup>는 『겨레말큰사전』

---

13) 이영희, “지명 속에 나타난 북한 개성시의 자연경관특성,” 『대한지리학회지』, 제41권 3호(2006), 283~300쪽.

14) 김기혁, “북한 지명관리 정책과 연구 동향 분석,”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9권 1호(2013), 28쪽.

15) 최진무 외, “북한식 지명의 우리말 복원 방안에 관한 연구,” 『국토지리학회지』, 제51권 1호(2017), 59~67쪽.

16) 변영수, “량강도 지명의 의미론적 연구: 『겨레말큰사전』 제25차 남북공동회의 논의 대상을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제59집(2017), 61~112쪽; 변영수, “북한 지명의 후부요소 유형,” 『겨레어문학』, 제61집(2018), 329~362쪽.

제25차 남북공동회의<sup>17)</sup> 논의 이후에 북한 량강도 지명형태소의 의미론적 특성을 밝히거나 북한 지명의 후부 요소의 유형에 대해 분석하였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북한의 지명이 다양한 시각에서 연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북한의 지명을 ‘언어순화’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북한에서 언어순화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196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발행되고 있는 어학 잡지 『문화어학습』의 내용 분석을 통해 북한의 지명이 어떻게 순화되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 3. 북한의 행정구역개편과 지명조사사업

#### 1) 행정구역개편

북한의 지명에 대해 분석하기 전에 해방 직후부터 행해졌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에서 해방 이후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사업 중 하나가 바로 일본식 행정구역 체계를 개편하고 일본식 한자로 읽는 지명을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었다. 당시 일본은

---

17) 변영수는 제25차 남북공동회의는 2015년 12월 7일부터 13일까지 중국 대련에서 열렸고, 지명 요소에 대한 논의가 처음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 이후에는 남북공동회의가 열리지 않아 지명 요소에 대한 논의가 더 이상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 따라서 량강도 지명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었다고 한다. “량강도 지명의 의미론적 연구: 『겨레말큰사전』 제25차 남북공동 회의의 논의를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제 59집(2017) 55쪽.

행정구역 체계를 일본식으로 바꾸고 조선의 지명을 일본식 한자음 그대로 읽었다. 북한은 1946년 9월 5일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결정 제 71호를 채택하여 평양의 행정구역을 구(區)·리(里)로 구획하였고, 같은 해 9월 16일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결정 제80호인 ‘평양특별시의 구제도 실시에 관한 결정서’를 채택하여 지명에 남은 일제 잔재를 없애기 위한 정책을 폈다.

1947년 4월과 11월, 1948년 7월에는 북조선인민위원회 법령으로 강원도와 평안남도의 군에 있는 면의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지방 행정구역 체계를 구축하였다. 1949년 1월 최고인민회의의 법령으로 평안북도 6개 군과 함경남도의 일부를 분리하여 새로 자강도와 라진군을 신설하였다.<sup>18)</sup>

이후 1952년 12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6호를 발표하여 행정구역을 개편하는데 군은 종래 91개에서 169개로, 리는 10,120개에서 3,659개로 정비되었고, 군의 중심에는 168개의 읍과 41개의 로동자구가 신설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종래에 있던 면이 전부 폐지되었다.<sup>19)</sup>

1954년 10월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법령에 따라 일부 행정구역의 통합과 분리가 진행되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황해도를 황해남도과 황해북도로 분리하고, 량강도를 신설하고, 경기도 개풍군과 판문군은 황해북도에 편입시켰다. 1955년 2월에는 도시 안에 있는 리(里)를 동(洞)으로 바꾸고, 1956년 9월부터 1963년 11월 28일까지 13차례 걸쳐 지방 행정구역을 개편하였다.<sup>20)</sup>

---

18) 박명훈, 『조선지명학』, 조선어학전서 35권(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5)의 147~148쪽을 요약 정리하였다.

19) “고장이름의 주체적발전을 위한 현명한 령도,” 『문화어학습』, 제3호(2005).

이렇게 해방 이후부터 진행된 북한의 행정구역 개편은 아마도 일본 식민지 지배 청산과 한국전쟁 등과 같은 한반도의 특수한 역사적인 상황과 관련이 있었을 것이라 사료된다. 그중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던 개편은 1952년이었고, 1960년대 중반 즈음까지는 대략적인 행정구역 체계가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후에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지역에 따라 일부의 통합 및 분리 등의 개편은 진행되고 있다.<sup>21)</sup>

## 2) 지명조사사업

행정구역 개편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지역이 두 개 이상의 지역으로 분리되기도 하고, 두 개 이상의 지역이 합쳐져 하나의 지역으로 흡수되기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개편에 따라 지명도 변화하기 마련인데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북한 문헌에 의하면 행정구역 개편은 1946년부터 1983년까지 약 37년 동안 110여 차례 걸쳐 진행되었다고 한다.<sup>22)</sup> 특히 이 중 1952년의 행정구역 개편은 “행정구역 자체의 변동에서 큰 계기였을 뿐 아니라 북한의 고장이름 변천에서도 사변적인 계기<sup>23)</sup>”라 분석되고 있다.<sup>24)</sup>

20) 박명훈, 『조선지명학』, 조선어학전서 35권(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5), 149~150쪽을 요약 정리하였다.

21) 한 예로, 함경북도의 1960년대 이후 북한의 행정구역 개편은 1960년 1월, 1961년 12월, 1963년 11월, 1967년 8·10월, 1970년 7월, 1973년 8월, 1974년 5월, 1977년 9·11월, 1981년 10월, 1985년 7·12월, 1991년 7월, 1993년 1·9월, 1994년 3월, 2002년까지 총 18회에 걸쳐 이루어졌다(『조선지명편람: 함경북도, 라선시』 참조).

22) 조창선, 『조선지명연구』, 조선어학전서 37권(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5), 320쪽.

23) 박명훈, 『조선지명학』, 조선어학전서 35권(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5).

24) 『문화어학습』, 제3호(2005), 참고로 북한 문헌에서는 지명을 ‘고장이름’이라 말하기도 한다. 여기서 ‘고장이름’은 아마도 행정구역의 지명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표 1〉 1952년 새로 생긴 지명

피현군(피현면의 이름을 뺐다)	대관군(리의 이름을 뺐다)
우시군(우시면의 이름을 뺐다)	청성군(리의 이름을 뺐다)
천마군(천마면의 이름을 뺐다)	운전군(별의 이름을 뺐다)
곽산군(곽산면의 이름을 뺐다)	향산군(묘향산의 이름을 뺐다)
북진군(북진면의 이름을 뺐다)	동림군(산성의 이름을 뺐다)
동창군(동창면의 이름을 뺐다)	염주군(소금 생산지로 유명하다고 하여 붙인 이름)
구장군(리의 이름을 뺐다)	

자료: 『조선지명학』 참조.

위의 말을 빌리자면 1952년의 행정구역 개편은 매우 획기적이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새로 지어야 할 지명 또한 필연적으로 많이 생겨난 셈이다. 다음은 『조선지명학』<sup>25)</sup>에 소개된 평안북도에 신설된 일부의 군 이름으로 1952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새로 생겨난 지명이다.

위의 사례를 보면 1952년 당시만 해도 새로 생긴 ‘군(郡)’의 이름을 기존에 사용했던 ‘면(面)’이나 ‘리(里)’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쓰거나 자연지형 혹은 그 지역의 특징과 관련지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명의 특징인 유연성(有緣性)을 살려 지은 것으로 일반적인 지명의 명명(命名)과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하다. 여기서 지명의 유연성이란, 지명이 발생한 근거가 되는 특정한 사실과 현상이 지명에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sup>26)</sup> 이 당시에 새로 지은 북한의 지명을 보면 북한만의 특수

---

의 대표적인 사전인 『조선말대사전』의 ‘고장이름’은 ‘일정한 행정구역이나 개별적인 지방의 마을, 거리, 산, 강, 지형, 지물 등에 대한 이름.[=지명]’으로 풀이되어 있다.

25) 박명훈, 『조선지명학』(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5), 149~150쪽.

26) 김순배·류제현, “한국 지명의 문화 정치적 연구를 위한 이론의 구성,” 『대한지리학회지』, 제43권 4호(2008).

한 명명법이라기보다는 특수어휘라 할 수 있는 지명의 일반적인 명명법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후 ‘지명조사사업’이 시작되면서 북한만의 특수한 명명법이 존재하게 된다. 그 명명법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하고 우선 ‘지명조사사업’에 대해 살펴보겠다. 1960년대 중반, 대략적인 행정구역 체계가 정비되면서 1966년부터 본격적인 지명조사사업이 시작된다. 이 사업에 관한 내용은 『문화어학습』 2008년 2호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sup>27)</sup>

그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1966년 9월 27일 내각 명령 제13호로 ‘고유한 조선말지명을 조사할데 대하여’가 채택이 된다. 이를 집행하기 위한 기구로 중앙에는 전국지명사정위원회를, 각 도의 시와 군에는 지명조사위원회를, 리 단위에서는 지명조사조를 조직하고 지명조사원을 위한 정치실습 강습을 하고 각 도에 2명씩 지도성원을 파견하였다. 지방에서도 지명조사사업과 관련한 실무강습을 진행하고 두 차례에 걸쳐 방식상학과 경험교환회를 조직하였다고 한다.<sup>28)</sup> 구체적인 실무강습에는 언어학자들과의 담화문이라 불리는 두 차례의 김일성교시<sup>29)</sup>와 1964년 1월 25일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결정 ‘조

---

27)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 밑에 우리 나라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된 전국적인 지명조사사업,” 『문화어학습』, 제2호(2008), 6~7쪽.

28) ‘방식상학’과 ‘경험교환회’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조선말대사전』 참조).

[방식상학(方式上學)] 한 단위에서 모범을 창조해 놓고 그것을 본보기로 하여 일군들에게 정치사업방법이나 방식, 선진기술의 창안이나 도입 등을 가르치고 그들의 정치실무 수준을 높여줌으로써 모든 단위에서 그 모범을 본받도록 하는 상학.

[경험교환회]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는 과정에 얻는 성과와 경험을 서로 교환하여 일반화하기 위해서 가지는 모임.

29) 제1차 김일성교시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가지 문제’(1964년 1월 3일), 제2차 김일성교시 ‘조선어의 민족적특성을 옳게 살려나갈데 대하여’(1966년 5월 14일).

언어를 더 한층 발달시키며 인민들의 언어생활에서 문화성을 높일테  
 대하여'와 1966년 10월 조선로동당 대표자회결정서에서 지명조사사  
 업과 관련되는 부분을 전달하고 내각 명령 제13호의 내용과 의의, 그  
 리고 '지명조사사업과 지도요강', '지명조사요강'을 해설하였다. 이 실  
 무강습이 끝난 이후에는 새 지명안에 대해 토의 결정하기 위해 방식  
 상학을 조직하고, 관내의 한 개의 리(里)를 정하여 그것을 일반화하기  
 위한 경험교환회를 진행하였다. 한편 각 도, 시, 군에서는 지명조사사  
 업이 전 군중적인 사업이 되게 하고 이 사업이 인민 대중을 불러일으  
 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강연, 해설 담화 및 방송을 통하여 그  
 필요성과 조서방법을 널리 선전하였다고 한다.<sup>30)</sup> 이에 따라 지명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지명의 유래, 새 지명안에 대한 광범한 군중과 구  
 체적으로 토의하여 『지명조사보고서』를 만들었다고 한다.<sup>31)</sup>

『문화어학습』에 실린 위와 같은 글의 내용을 보면 이 지명조사사업  
 은 이전부터 이 사업에 대한 준비가 있었을 것이고, 이로 인해 비교적  
 단기간에 매우 체계적으로 수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약 1년  
 반이라는 결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전국의 모든 행정지명과 마을,  
 골짜기, 강하천, 굴, 바위, 언덕 등의 자연지명과 그 이름의 유래와  
 뜻, 그 변천 과정에 대해 조사'<sup>32)</sup>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당시 지명조사사업을 통해 조사된 지명은 약 50여만 개로 그 실태  
 는 다음과 같다.<sup>33)</sup>

---

30) 『문화어학습』, 제2호(2008), 6~7쪽.

31) 위의 책, 6~7쪽.

32) 위의 책, 5~6쪽.

33) 조창선, 『조선지명연구』(2005), 328~329쪽 참고.

## ① 행정지명

군급지명총수 214개, 리급지명총수 4,508개<sup>34)</sup>

행정지명에서는 고유어 지명이 57개인데 이 중 36개는 내각 명령 제 13호<sup>35)</sup>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개정된 것이며, 나머지 21개는 원래 고유어 지명인데 한자 표기로 인해 한자말 지명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 ② 자연지명

자연지명 476,760개

그중 고유어 지명 257,242개

한자말이나 그 밖의 외래어로 된 지명 199,385개

고유어와 한자말이 나란히 쓰이는 지명 20,133개<sup>36)</sup>

이 조사는 행정지명과 자연지명으로 나누고 각각 고유어와 한자어, 그리고 외래어로 된 지명의 수를 파악한 것이다. 아마도 이 조사가 끝나갈 무렵인 1967년 10월 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반부의 행정구역을 고칠데 대하여’가 채택되는데 이에 따라 지명을 고유어로 지을 것을 우선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당시 북한의 언어정책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당시 북한은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이라는 일종의 언어순화운동이 전국

---

34) 위의 책, 328~329쪽.

35) 1966년 9월 27일 공화국 내각 명령 제13호, ‘고유한 조선말지명을 조사할데 대하여’.

36) 조창선, 『조선지명연구』(2005), 328~329쪽 참고.

적으로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을 때이다. 일본어나 외래어를 고유어로 바꾸고 한자어도 가능하면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북한 언어순화의 기본 방침인데, 지명에서도 그 방침이 적용되고 있다.

북한의 지명 순화에 대해서는 언어순화에서도 기본방침으로 하는 김일성교시에도 잘 나타나 있다.

…… 고유어를 적극 찾아 고장이름도 우리 말로 부르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말로 부르는것이 한자말로 부르는것보다 더 고상합니다. 가령 《붉은바위》를 《적암》이라는 식으로 한자말로 바꾸어 놓으면 더 좋은것이 아니라 아주 초라합니다. 지금 고장이름을 한자말과 고유어의 두가지로 부르는것이 좋지 않습니다. 《돌다리골》을 《석교동》이라고 하는것이 바로 그런 실례입니다. 고유어로 된 고장이름들을 다 조사하여 될수록 한자말을 쓰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사회과학원에 고장이름을 조사해보라고 하였는데 그 사업이 어떻게 되고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사회과학원의 힘만으로는 그 사업을 다 하기 벅찰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각에서 이 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결정이나 명령을 하나 내려보내도록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고유어로 된 고장이름을 다 조사하면 그대로 쓰게하고 지도를 다시 찍으면 됩니다. 행정구역이름도 내각결정으로 고치게 하면 될것입니다.……

1966년 5월 14일 김일성 제2차 교시의 일부

지명에서도 한자말 대신 우리 고유어를 찾아 써야 하고 한자어와 고유어가 공존하는 지명일 경우에는 한자말을 쓰지 말자고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지명의 실태에 대해 조사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내각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북한에서 김일성교시는 매우 강력한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만큼 당시 이 교시 이후에 철저한 지명조사사업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4. 『문화어학습』의 지명 관련 글의 현황

##### 1) ‘지명’의 개념

『문화어학습』의 본격적인 내용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지명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다. 북한에서 사전적 의미로는 ‘지명=고장이름’이다. 지명의 동의어인 ‘고장이름’은 ‘일정한 행정구역이나 개별적인 지방의 마을, 거리, 산, 강, 지형, 지물<sup>37)</sup> 등에 대한 이름’을 뜻한다. 남한 사전인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지명’은 ‘마을이나 지방, 산천, 지역 따위의 이름’을 의미하는데, 남북한 사전의 뜻풀이에 따르면 북한에서 ‘지명’이라는 어휘를 더욱 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명훈<sup>38)</sup>은 지명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지명이란, 사람들을 둘러싸고있는 지리적대상에 준 이름을 말한다. 다 시말하여 사람이 살며 활동하는 주위세계의 지리적대상물로서 구체적으로는 산, 봉우리, 고개, 령, 제, 골짜기, 덕, 언덕, 등, 분지, 고원, 별(들), 간석지, 강, 호수, 저수지, 못, 샘(약수, 온천), 여울, 굽이, 만, 반

---

37) 『조선말대사전』에 의하면 ‘지물’은 ‘땅거죽에 자연적으로 존재하거나 또는 인공적으로 시설한 모든 것 곧 숲, 강, 길, 못 같은 것’을 뜻한다.

38) 박명훈, 『조선지명학』(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5), 11쪽.

도, 섬 등의 모든 자연지리적대상과 도, 시, 군, 구역, 동, 리, 로동자구, 지구, 구, 읍 등 지난날에 있었던 모든 행정구역단위들(별칭, 이칭, 별호), 마을, 광장, 거리, 공원, 유원지, 놀이터 등과 같은 이름들이다.

사실 북한에서 지명 연구에 있어서 지명의 범위를 어디까지 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박명훈<sup>39)</sup>에 의하면 지명연구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지리적 대상의 이름과 행정구역 체계에 따라 구획한 지역 이름만이 지명으로 된다는 것과 지표면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지리적 대상과 함께 인간이 건축한 건축물을 다 포함해 지명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 글에서는 후자의 견해에 따라 넓은 의미에서 지명에 대해 접근하려고 한다. 그 이유는 『문화어학습』에서는 지명(=고장이름)뿐만 아니라 자연지명과 다리·거리·건물 등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에 대한 글이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명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정지명이 다리·거리·건물 등에, 자연지명이 또 다른 행정지명을 지을 때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지명과 자연지명뿐만 아니라 다리·거리·건물 등과 같은 지물의 이름 또한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 2) 지명 관련 글의 현황

『문화어학습』에 지명과 관련된 글은 총 105건이다.<sup>40)</sup> 『문화어학

---

39) 위의 책, 13쪽.

40) 1968년부터 2017년까지의 『문화어학습』(총 199권)에서 누락된 호를 제외한 것이다(누락호: 1997년 3호, 2003년 2호, 2012년 1~4호, 2013년 1, 3, 4호, 2014년

〈표 2〉 『문화어학습』의 지명 관련 글

연도 구분	1) 지명의 명명	2) 지명의 유래	3) 외국의 지명	합계
1968~1977	10	0	1	11
1978~1987	22	0	4	26
1988~1997	11	4	0	15
1998~2007	8	28	2	38
2008~2017	6	9	0	15
합계	57	41	7	105

습』이 일반 대중을 독자로 하는 만큼 지명과 관련된 글 또한 다양한 형식으로 쓰이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글의 내용을 중심으로 1) 지명의 명명, 2) 지명의 유래, 3) 외국의 지명(남한 지명 포함)으로 분류하였다. 〈표 2〉는 편의상 10년 단위로 구분하여 위와 같이 3개의 항목으로 분류한 게재 글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표 2〉를 보면 지명의 명명에 관한 글이 57건, 지명의 유래가 41건, 외국의 지명이 7건이 있다. 『문화어학습』이 창간된 1968년부터 현재(2021년)에 이르기까지 지명과 관련된 글은 꾸준히 실리고 있는 듯하다.

대략적인 시기별 특징을 살펴보자면, 비교적 초기에는 지명의 명명과 관련된 글이 대부분이었다. 새로 생긴 지명이나 다리, 거리, 건물 등의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엿보이는 글, 고유어 지명에 대한 애착을 볼 수 있는 글들이 주로 실렸다. 바꾸어야 할 지명과 새로 지은 지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후술하겠다. 2000년대에 들어서부터는 지명의 유래와 관련된 글이 증가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유래, 전설 혹은 역사적인 사실로 인해 만들어진 지명에 대한 소개 글

---

1~4호, 2015년 1, 4호).



〈표 3〉 지명의 명명과 관련된 글의 제목과 연도 및 호수

	제목	연 - 호
1	아름다운 우리 나라의 고유한 우리말 지명	1968-2
2	인민들에게 친숙한 우리말 고장이름	1970-4
3	우리말로 지은 고장이름	1971-1
4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지어주신 이름 - 옥류교	1975-2
5	평양시의 고장이름에 깃든 아버지사랑	1975-3
6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지어주신 이름 - 황금산	1975-3
7	조국의 지도를 펼치고 - 고장이름에 깃든 크나큰 은정(평안남도)	1976-4
8	고장이름은 로동계급의 지향에 맞게 발전시켜야 한다	1977-1
9	조국의 지도를 펼치고 - 영원한 사랑의 이름	1977-2
10	다리의 이름들을 두고	1977-3
11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지어주신 이름 - 만풍호	1978-1
12	이름을 어떻게 지을것인가? 고장이름	1979-2
13	이름을 어떻게 지을것인가? 거리의 이름	1980-3
14	이름을 어떻게 지을것인가? 다리의 이름	1980-4
15	이름을 어떻게 지을것인가? 건물의 이름	1981-1
16	지하역의 이름들을 부를 때마다(수필)	1981-1
17	고유어로 된 고장이름	1981-3
18	새로 건설하는 다리에 이름을 붙일 때에는 《다리》라고 하여야 한다	1982-2
19	수도의 려관들의 이름을 두고	1983-1
20	문수거리, 그 이름의 참뜻을 두고(수필)	1983-2
21	아버이수령님께서 몸소 지어주신 이름 - 칠골다리, 팔골다리	1983-3
22	영광의 이름 - 청년공원	1984-2
23	영광의 이름 - 인민대학습당	1984-3
24	새로 결정한 금강산의 일부 명승 및 해설대상물의 이름	1984-4
25	다리이름을 알기 쉽고 부르기 좋게 짓자면	1984-4
26	영광의 이름 - 평양 원산 사이의 고속도로를 따라서	1985-1

27	수필 - 다리이름에 대한 생각	1985-1
28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영광의 이름	1985-2
29	금강산에 피여난 새 이름	1985-4
30	영광의 이름 - 연풍호	1986-1
31	어버이사랑속에 날로 새로와지는 고장이름들	1987-2
32	고유어로 지은 새로운 고장이름들	1987-3
33	영광의 이름 - 안상택거리	1988-1
34	조국의 력사에 길이 빛날 고장이름들	1988-4
35	은혜로운 사랑속에 꽃피는 고장이름들	1989-2
36	영광의 이름 - 류경호텔	1989-4
37	불멸의 이름 《장군봉》	1991-2
38	주체적으로 발전한 우리나라 고장이름	1991-2
39	해방후 우리나라 강하천이름에서 일어난 변화	1991-2
40	우리 인민의 민족적감정과 시대적 요구에 맞게 발전한 고장이름	1992-3
41	은혜로운 사랑속에 영생하는 이름 - 보부리	1993-3
42	그 이름 묘향산의 삼경터여(시)	1994-1
43	모란봉정각들의 이름을 두고	1997-4
44	위대한 태양의 빛발안고 영생하는 이름 - 준혁리	1998-2
45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친히 지어 주신 지명들은 우리 시대의 지향과 미학적 요구를 가장 완벽하게 구현한 본보기지명	2002-4
46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혜로운 사랑속에 날로 개화만발하는 고장이름	2003-1
47	마을이름에 깃든 은정 깊은 사랑	2003-3
48	우리나라 지명의 단어조성적특성	2004-2
49	고장이름을 어떻게 지을것인가?	2005-1
50	고장이름의 주체적발전을 위한 현명한 령도	2005-3
51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고장이름발전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	2007-2
5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나라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된 전국적인 지명조사사업	2008-2
53	선군시대에 새롭게 태어난 이름 - 《감살구마을》	2008-4

54	고장이름의 주체적발전에 깃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령도	2009-2
55	우리 인민의 민족적감정과 시대적 요구에 맞게 발전한 청진시안의 고장이름을 놓고	2009-3
56	지명의 사회적역할	2010-2
57	주체적고장이름발전의 새 력사를 펼치시어	2011-2

이, 외국의 지명에는 외래어 표기와 관련된 글이 대부분이다.

이 글에서는 ‘지명의 명명’을 중심으로 내용분석을 하고자 한다. 다음 <표 3>은 지명의 명명과 관련된 글을 정리한 것이다. 이 글에서 자연지명, 행정지명뿐만 아니라 거리·다라·건물 등과 같은 지물까지 지명의 범위로 하기로 한 만큼 지명을 굳이 구분하지 않고 바꾸어야 할 지명(=배제의 대상이 되는 지명)과 새로 지은 지명(=수용의 대상이 되는 지명)을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 5. 언어순화의 대상으로서의 지명

우리 나라의 지명은 오늘 우리의 사회정치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므로 이 지명을 붙이고 쓰고 하는데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는 문제는 아주 중요하다. 더우기 우리 나라의 지명은 봉건시기의 한자사용과 일제의 침략으로 하여 적지않은것이 일정하게 우리의 주체적립장과는 어긋나게 쓰였던 사정으로 하여 더욱 그러하다.

위의 글은 『문화어학습』 1968년 2호에서 발췌한 것이다.<sup>41)</sup> 지명은

41) ‘아름다운 우리 나라의 고유한 우리 말 지명’, 『문화어학습』, 제2호(1968), 25쪽.

위와 같이 ‘어긋나게 쓰였던 사정’이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예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삼밭 - 마전, 찬샘 - 랭천, 꽃골 - 화곡, 살내 - 진천

왼쪽은 고유어, 오른쪽은 한자어이다. ‘마전(麻田)’이라는 한자어보다는 ‘삼밭’이라는 우리 고유어를 쓰는 것이 아름답고 좋은 것이니 한자어보다는 고유어를 쓰자는 것인데, 이는 당시 고유어와 한자어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이에 대해 한자어는 초라하다고 하는 김일성교시를 인용하며, 지명을 고유의 우리말로 정리하고 다듬고 고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문구는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과 같은 언어순화의 장에서 거의 매번 등장하는 글이기도 하다. 북한에서는 통치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언어순화를 내세웠는데 ‘지명’ 또한 언어순화의 대상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장에서는 『문화어학습』에 등장하는 지명의 사례를 통해 어떠한 지명이 언어순화의 대상이 되었으며, 새로 지은 지명에서는 북한 지명의 명명법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바꾸어야 할 지명

첫째, 외래적 요소

- (1) 여진말 지명: 독로강, 서수라리, 아롱천, 아롱성리, 아오지, 어망지리, 오로군, 옹기군, 주을
- (2) 일본말 지명: 대정봉

북한 지명에서 외래적 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여진말 지명과 일본말 지명이다. 『문화어학습』에 소개된 지명만을 분석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외래적 요소로는 주로 여진말 지명이 대부분이었다. 『문화어학습』 2007년 2호와 2008년 2호에 의하면 1966년에 시행된 지명조사사업 기간에 지명의 유래를 조사한 결과 당시 확인된 여진말 지명은 10개라고 한다.<sup>42)</sup> 우리말을 표기할 문자가 없었던 시기에 한자를 빌려 그 음만 차용해 쓴 지명이 그대로 전승된 것이다. 한자의 뜻과 관계없이 음만을 차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여겨졌을 것이다.

당시 밝혀진 여진말 지명을 바로 고친 곳도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1985년 7월에 전면적으로 정리되었다.<sup>43)</sup> 여진말 지명은 여진족이 거주하였던 함경북도와 함경남도, 그리고 자강도와 같은 북부지역에 분포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일본말 지명에는 대정봉(大正峯)이 있는데, 이는 백두산에

42) 조창선은 전국적인 지명조사자료에 의하면 여진말 지명이 18개가 있었다고 한다[『조선지명연구』, 조선어학전서 37권(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5), 327쪽]. 다음은 조창선과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고장이름발전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문화어학습』, 제2호(2007)],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나라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된 전국적인 지명조사사업”[『문화어학습』, 제2호(2008)]를 참고한 여진말 지명이다. 니망지리→락원리, 독로강→장자강, 동관리→장안리, 두연동→해안동, 서수라리→은혜리, 쌍포1동→제강1동, 쌍포2동→제강2동, 아룡성리→약수리, 아룡천→약수천, 아오지→학송리, 어망지리→낙원리, 오로군→영광군, 오모로리→신청리, 웅기군→선봉군(오늘날 라선시), 주을→온포리.

43) 박명훈에 의하면 여진말 지명은 1981년 6월과 같은 해 10월, 1985년 7월에 여진말 지명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정리하였다고 한다(『조선지명학』,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5).

서 가장 높은 봉우리의 이름으로 일본 식민지 시기에 당시 연호를 따서 지은 것이라 한다. 『문화어학습』 1991년 2호에 의하면, 언제부터 인가 ‘병사봉’으로 불리다가 1963년 8월 초 ‘병사봉’은 합당치 않다며 ‘장군봉’이라 부르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sup>44)</sup> 여기서 장군은 김일성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한다.

북한에서 순화해야 할 어휘 중 하나가 외래어였는데 지명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진말 지명과 일본말 지명을 몰아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비교적 빠른 시기에 고쳐졌다.

둘째, ‘봉건유교적, 종교미신적<sup>45)</sup>’ 요소

경원군, 길상리, 궁서동, 당현리, 령무동, 룡마동, 룡흥강, 룡흥동(리), 반룡산, 봉황리, 본궁1·2·3동, 사인정, 사직동, 생왕리, 어궁로동자구, 영호동, 영흥군(읍), 운룡리, 장안리, 중량리, 청룡리, 치마1·2·3동, 탑동, 한왕리, 향교리

조선 시대의 왕 혹은 봉건사회와 관련된 지명 혹은 미신과 관련된 지명은 모두 배제해야 할 대상인데 북한에서는 이를 ‘봉건유교적, 종교미신적’이라 표현하였다. 구체적으로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도 그대로 인용하였다.

여기에 속하는 지명은 예를 들어 길상리는 길상사라는 절이 있던 곳이고, 영흥군(읍)은 이성계의 고향이었다고 한다. 또한 운룡리는 용이 구름을 타고 승천하였다는 전설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며, 탑동

44) “불멸의 이름: <장군봉>,” 『문화어학습』, 제2호(1991).

45) 『문화어학습』에서 여러 번 언급된 것으로 본 연구에서도 그대로 인용하였다.

은 탑을 세우고 기우제를 지냈던 곳이라 한다.

당현리, 룡마동(용마동), 룡흥동(용흥동), 봉황리, 사직동, 장안리, 중량리, 청룡리, 향교리 등과 같은 지명은 남한에도 있는데 남한에서는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북한에서는 바꾸어야 할 대상이었던 것으로 보아 남한과 매우 대조적이라 할 수 있고, 북한에서는 지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개칭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해당하는 지명은 북한에서 새로 지향하는 통치 이데올로기에 반하기 때문이다.

셋째, 비שמ미적 요소

북천강, 알봉, 어둔골, 적굴동, 집선포, 퇴조군(읍), 황초평, 105층호텔

순화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바로 ‘아름다움’, 즉 ‘미화(美化)’라 할 수 있다. ‘아름다운 우리말을 꽃 피우자’라는 말은 북한 언어순화와 관련된 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지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어둔골, 적굴동, 알봉, 퇴조군(읍), 황초평’과 같은 지명은 ‘이름이 좋지 않다’, 혹은 ‘뜻이 좋지 않다’라는 이유로 바꾸어야 할 대상의 지명이다. 즉, 어감이 좋지 않거나 긍정적인 의미가 아닐 경우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집선포’와 같이 이름을 짓게 된 근거나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바꾼 경우도 있고, 현재 ‘북천’으로 다듬어진 ‘북천강’과 같이 의미가 증척되는 경우도 바꾸어야 할 대상이었다. ‘황초평’과 ‘105층호텔’을 각각 ‘황금평’과 ‘류경호텔’로 바꾸었는데, 이는 보다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바꾸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여기에 해당하는, 즉 비שמ미적 요소에 대한 가치 판단은 다음에 나오는 ‘수령성’과 무관하지 않다.

## 2) 새로 지은 지명

『문화어학습』 1981년 3호에는 고유어로 된 지명을 적극적으로 살려서 쓸 것에 대한 글이 실려 있다. 고유어로 된 지명을 써야 하는 이유는 ‘민족적 특성을 더욱 살리고 발전시켜 나가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며, 한자어 지명은 ‘고유어 이름이 활발하게 쓰이는 것을 방해하며 언어생활에 복잡성을 이루어놓는다’고 하였다. ‘한자어 지명은 어디까지나 우리말 속에 스며든 외래적인 요소’라 하며 한자어 지명을 철저히 검토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한 고장에 대해서 고유어와 한자어가 있으면 고유어를 기본으로 하고, 새로 만드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첫째, 현대성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할 것, 둘째, 민족적 특성을 잘 살릴 것, 셋째, 언어의 문화성을 보장할 것이라 하였다.<sup>46)</sup> 이것은 지명을 지을 때뿐만 아니라 일반어휘의 명명에도 해당하고, 언어생활에서 지켜야 할 예절에서도 해당하는 것이다.<sup>47)</sup>

이 글에서는 새로 지은 지명을 민족적 요소, 통치 이데올로기와의 관련성, 유연성으로 분류하였다. 해당하는 내용이 겹치는 경우도 있으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잘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하여 분류하였다.

---

46) “고유어로 된 고장이름,” 『문화어학습』, 제3호(1981).

47) “녀성들의 레절있고 검박한 말씨,” 『문화어학습』, 1976년 3호에 의하면 북한 여성들의 언어예절에서도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 언급되어 있는데, 첫째, 예절있는 말씨(언어의 문화성), 둘째, 민족적정서가 넘치는 말씨, 셋째, 현재의 요구에 맞게 세련된 말씨로 지명의 명명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 첫째, 민족적 요소

여기에 해당하는 지명은 ‘민족적 요소’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즉 지명을 ‘고유어’로 짓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로 고장이 위치한 곳의 특성이나 특산물 등의 이름에서 따오거나, 해당하는 곳의 지역 방언이나 자연지명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다.

### (1) 행정지명

갈골동, 갈림길동, 강안동, 검은금동, 고개동, 과일군(동), 금바위동, 긴골리, 긴마을동, 긴재리(동), 네길동, 논벌리, 능금동, 단풍리, 독골동, 동안동, 두루동, 두무동, 등매동, 대동문동, 련못동, 매봉동, 삼골동, 샘물리(동), 선바위동, 섬안리, 세거리동, 세골리(동), 세길동, 새우물리, 소나무동, 솔모루동, 솔밭리, 앞새동, 옷매동, 한우물리

### (2) 자연지명

가리폭포, 거품소, 곧은폭포, 바리폭포, 방울폭포, 복숭아소, 비단폭포, 실타래폭포, 세갈래폭포, 은실폭포, 고래등바위, 곰바위, 무대바위, 붓끝바위, 비둘기바위, 오리바위, 책바위, 초대바위, 피바위

『문화어학습』에 지명과 관련된 글이 실리기 시작한 것이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고유한 우리말 지명’(1968년 2호)이다. 즉, 거의 창간 시점부터 고유어 지명을 찾아내고 만들어 쓰는 것에 대한 고민을 엿볼 수 있는데, 이는 일반어휘에서 고유어를 찾아내고 새로 만드는 것에 대한 기본 방침과도 같다고 할 수 있다. 어휘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고유어 어휘에 대한 애착 혹은 집착은 지명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해방 이후만 해도 우리말 특성상 자연지명에는 고유어 지명이 많이

있었지만, 행정지명에는 거의 없었다. 사실 남한에서는 최근 지명을 고유어에서 찾아 쓰자는 움직임은 있으나 북한에 비하면 미비한 수준이다. 북한에서는 자연지명뿐만 아니라 행정지명에서 고유어 지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은 남한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남한 학자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sup>48)</sup>

둘째, 통치 이데올로기와의 관련성

여기에 해당하는 지명은 북한의 통치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것으로 인명과 관련된 지명, 북한 사회주의와 관련된 지명으로 나누었다.

(1) 인명지명

- ① 김정숙군, 김형권군, 김형직군, 김책군(시), 김제원리, 룡진구, 리수덕리, 보부리, 수북동, 안길리, 영웅리<sup>49)</sup>, 원진리, 준혁리, 학송리, 경신리<sup>50)</sup>
- ② 강건거리, 안길거리, 안상택거리

---

48) 이영택은 남한에는 ‘서울’ 이외의 읍 이상의 도시는 전부 한자 지명인 데 비해 북한에 우리말 지명이 많은 것은 장점이라 하였고[“북한의 지명변화와 지명의 유형,” 『아세아연구』, 제37권 1호(1994), 41~54쪽], 김영배는 북한 지명 전체를 두고 볼 때 가장 큰 특징은 고유어로 된 지명이 있다는 것이며, 이는 우리 지명 역사에 있어서 큰 사건이 아닐 수 없다고 하였다[“북한의 지명,” 『새국어생활』, 제4권 1호(1994), 146~172쪽].

49) 『조선지명편람』에 의하면 공화국영웅이라 불리는 안홍준 비행사의 고향마을이라 한다.

50) ‘경신리’는 김일성의 아버지인 김형직이 세운 경신학교가 있는 곳이라 하여 지은 지명이라 한다. 인명 지명은 아니지만, 인물과 관련된 지명이라 판단해 인명 지명에 포함시켰다.

(2) 북한 사회주의와 관련된 지명

① 새거리동, 새골동, 새길리(동), 새날리(동), 새마을리(동), 새살림리(동)

② 개혁동, 금골로동자구(동), 광명리(동), 꽃핀동, 대풍리, 락원군(리, 읍,동), 로동자동, 류별리, 만풍리, 문화리(동), 부운동, 붉은거리동, 붉은별리, 선구자동, 승리동, 신흥리(동), 평화동, 풍년리, 풍어동, 혁신리, 해빛리(동)

③ 락원거리, 인민군거리, 천리마거리

(1) 인명 지명에는 김일성 일가와 관련된 인물과 북한에서 말하는 이른바 ‘혁명영웅’의 이름을 따서 지은 지명이다. 북한의 위인들과 인민의 모범이 되는 인물의 이름으로 지은 지명인데, ①은 김일성 일가와 북한 정권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은 군(軍), 이외의 인물들에게는 태어난 구(區)나 리(里)에 이름을 붙인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실제의 이름을 딴 경우도 있고, 영웅리나 경신리와 같이 인물과 관련된 것을 따서 지은 지명도 있다. ②와 같이 행정지명 이외에 거리명에도 인명 지명이 쓰였다.

(2) 북한 사회주의와 관련된 지명으로는 ①과 같이 접두사 ‘새-’가 들어가는 지명과 ②나 ③과 같이 북한 사회주의에서 바라는 염원이나 바람을 담은 지명이 있다. ‘새-’가 들어가는 지명에는 고유어 앞에 붙은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그 외의 지명에는 이미 북한에서 고착화된 한자어라 할 수 있는 어휘를 이용한 경우가 많았다. 여기에는 주로 긍정적인 의미로 보이는 지명이 많은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송성길(2009)은 이와 같은 지명은 ‘시대적 요구를 훌륭히 구현하고 있는 것’이라 분석하였다.<sup>51)</sup>

셋째, 유연성(有緣性)

지명의 특성 중 하나인 ‘유연성’이 잘 나타나는 지명이 여기에 해당한다.

(1) 북한의 산업과 관련된 지명

강철동, 금빛동, 금실동, 방직동, 비단리(동), 산업동, 서향동, 선광동, 어항동, 은실동, 자원리, 제강동, 제철동, 탄소동, 탐사동, 흰실동

(2) ‘송(松)’을 사용한 지명

송곡리, 송림동, 송평구역(동), 청송동

(3) 지물 및 자연지명과 관련된 지명

① 남문거리, 보통문거리, 서문거리

② 대동강동, 보통강동, 대동강구역, 보통강구역, 성천강구역, 압강동<sup>52)</sup>, 두만강로동자구, 리명수로동자구<sup>53)</sup>, 삼지강리, 만경대동, 승전동, 전승동

③ 약수리, 역전리, 온포리

④ 평성

(1) 북한의 산업과 관련된 지명에는 주로 경공업 및 중화학공업과 관련된 공장이 많은 곳이다. 예를 들어 강철공장, 제사공장, 방직공장

---

51) “우리 인민의 민족적감정과 시대적 요구에 맞게 발전한 청진시안의 고장이름을 높고,” 『문화어학습』, 2009년 3호.

52) 압록강을 줄여서 쓴 것이라고 한다.

53) 리명수는 삼지연군에 있는 강 이름이다.

등이 있는 곳의 지명이 강철동, 금실동, 방직동이다. 또한 산업지구에 있어서 산업동이고, 어항을 끼고 있는 곳이라 어항동인 것이다. 금빛동, 선광동, 제강동, 탄소동은 제련소나 선광장, 제강소, 탄소공장이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2) ‘松’을 사용한 지명에는 굳이 고유어로 풀어 쓰지 않고 한자 그대로 사용하였다. 『문화어학습』에는 한자 표기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지명에 대해서는 “모두 《송》(松 솔 송)자를 써서 지은 고장이름들로서 소나무를 많이 심고 가꾸어 온 인민들의 생활정서를 잘 보여주고 있다”<sup>54)</sup>고 하였다.

(3)의 ①은 예전 평양성에 있던 성문의 이름을 살려서 거리의 이름을 지은 것이고, ②는 강과 산 등의 자연지명에서 이름을 따서 지은 행정지명이다. ③의 경우에는 약수터가 있는 곳이라 약수리, 역전이 있던 곳이라 하여 역전동, 더운 물이 나오는 곳에 보를 설치하였다고 하여 온포리라고 지은 것인데 역사적 사실에 기인한 지명이라 할 수 있다. ④의 ‘평성’은 ‘평양의 위성도시’라는 뜻에서 지은 지명이라 할 수 있다. (3)에 속하는 지명은 북한만의 특수한 명명법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지명의 명명법이라 할 수 있는 사례이다.

### 3) 수령에 의한 지명

북한 문헌을 보면 ‘수령’의 교시 혹은 지침 등이 자주 등장한다. 지명에 관해서도 예외는 아니다. 이 글에서는 언어순화의 기본원리와 관계없이 최고지도자의 말과 글에 의해 배제되거나 수용되거나 하는

---

54) “우리 인민의 민족적감정과 시대적 요구에 맞게 발전한 청진시안의 고장이름을 놓고,” 『문화어학습』, 제3호(2009).

등의 결정이 내려지는 것을 ‘수령성’이라 칭하기로 하였다. 즉, 수령에 의해 순화의 대상이 되거나 새로 명명되는 지명이 여기에 해당하며, 이유 불문하고 배제되거나 수용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수령에 의해 바꾸어야 할 지명, 즉 순화의 대상이 되는 지명은 다음과 같다.

보통강역전가로, 정개골(정가골), 제2대동교, 제3보통교, 팔동교, 형제폭포

김일성의 언어학자와의 담화, 즉 김일성교시에서 ‘교(橋)’는 ‘다리’로 바꾸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팔동교’에서 ‘팔동’은 고유어인 ‘팔골’로, ‘교’는 다리로 바꾸어 ‘팔골다리’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통강역전가로’는 ‘붉은거리’로, ‘정개골’(정가골)은 ‘밤나무골’로, ‘형제폭포’ 또한 김정일정권 시기 ‘2선남폭포’로 바꾸라고 지시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이유 불문하고 개칭되었다. ‘제2대동교’, ‘제3보통교’ 또한 바꾸어야 할 지명으로 각각 ‘옥류교’와 ‘만수교’로 개칭되었다. 이 사례의 특이점은 교시에 따라 ‘다리’로 다듬어졌던 수많은 다리의 이름과 달리 ‘옥류교’, ‘만수교’와 같이 ‘교’가 그대로 쓰인다는 점이다.

바꾸어야 할 지명에 ‘수령성’에 속하는 지명이 있다면 새로 지은 지명에도 물론 ‘수령성’에 해당하는 지명이 있다. 이는 곧 지금까지 순화의 방침 지명의 명명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최고지도자의 말과 글에서 나온 지명이라면 바로 수용해야만 하는 지명이다. 여기에서는 지도자와 관련된 지명으로 기념성, 지도자가 지은 지명, 지도자에 대한 충성으로 나누었다.

### (1) 기념성

- ① 구오동, 구월동, 칠팔동<sup>55)</sup>

② 정일봉, 장군봉, 금성동<sup>56)</sup>

③ 김일성거리, 김일성국제소년단야영소, 김일성농업과학연구소, 김일성도서관, 김일성부대, 김일성서점

(2) 지도자가 지은 지명<sup>57)</sup>

① 칠골다리, 팔골다리, 네갈림다리, 송신다리, 청천다리, 충성다리, 옥류교, 만수교, 무용교

② 금수산거리, 문수거리, 봉화거리, 붉은거리, 청년거리

③ 류경호텔, 모란봉려관, 서평양려관, 창관산려관, 인민대학습당, 청년공원

④ 평화정, 승리각, 애련정, 은달루, 감찬정

⑤ 기관차바위, 대장군바위, 땅크바위, 병사바위, 사수바위, 어뢰정바위, 포바위

⑥ 황금산, 만풍호, 연풍호, 무지개동굴, 2선남폭포, 주림폭포, 진달래터, 목란터, 감살구마을, 황금평리, 금야군(읍)

(3) 지도자에 대한 충성

① 개선동, 덕성동, 문화동, 상봉동, 선본궁, 새별군(리,동), 영광군(동), 은덕동, 은빛동, 은정구역(리, 동), 은혜리, 장자동, 정성동, 충성동

② 장군대, 정성대, 충성대, 효성샘, 회상대, 회상다리

---

55) 『문화어학습』에는 ‘칠팔동’이라 표기되어 있으나, 『조선지명편람』에는 ‘7월 8일동’으로 표기되어 있다.

56) ‘금성동’은 김일성이 태어난 곳을 말한다.

57) b. 지도자가 지은 지명에서는 인명지명의 대부분이 이에 속하는데 앞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기로 하였다. 또한, 행정지명도 생략하였다.

(1) 기념성에는 ①과 같이 지도자가 현지지도를 한 날짜를 기념하기 위한 지명과 ②와 같이 김정일의 이름을 딴 ‘정일봉’, 김일성을 뜻하는 ‘장군봉’, 김일성을 나타내는 ‘금성’을 따서 ‘금성동’이라 지은 지명이 있다. ③은 소말리아, 레바논, 나이지리아, 모잠비크, 기니, 잠비아 등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지에 있는 건물이나 장소인데 모두 김일성의 이름을 붙여서 지은 지명이다.

(2) 지도자가 지은 지명에는 『문화어학습』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지어주신 이름’, ‘영광의 이름’, ‘불멸의 이름’, ‘은혜로운 사랑 속에 영생하는 이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친히 지어주신 지명들은……’ 등과 같은 제목의 글 속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여기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다리’와 관련된 글이다. 지명의 명명과 관련된 글 57건 중 ‘다리’와 관련된 글만 해도 7건이나 있다. 이것은 아마도 다리를 뜻하는 한자 ‘~교’ 대신 ‘~다리’를 쓰자는 김일성 교시와 관련이 있으리라 추측된다. 『문화어학습』에는 김일성이 1968년 7월 새로 건설하고 있는 다리에 대해 ‘칠골다리’<sup>58)</sup>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에 따라 ‘팔동교’라 불렀던 다리를 ‘팔골다리’로 고쳐야 한다고 하였다.<sup>59)</sup> 김일성교시에서 “‘석교’라는 말도 ‘돌다리’라고 쓰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에 적용된 듯하다. 이후 네갈림다리, 송신달, 청천다리, 충성다리 등과 같은 다리 이름이 생겨났다.

하지만 『문화어학습』 1975년 2호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지어주신 이름인 옥류교’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김일성교시의 내용에 위배

58) 참고로 ‘칠골다리’가 있는 ‘칠골동’은 김일성의 어머니인 강반석과 김일성의 외가가 있는 고향이라고 하였다.

59) “아버이수령님께서 몸소 지어주신 이름 칠골다리, 팔골다리,” 『문화어학습』, 제3호 (1983).



되는 것이다. 즉, 지명의 명명에 있어서 예외의 경우라 할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를 ‘수령성’이라 칭하기로 하였다. 즉, 지도자가 정한 것에는 절대적으로 복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김일성교시가 언어규범의 지침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분명 ‘~다리’로 바꾸어야 마땅한 것을 ‘옥류교’, ‘만수교’, ‘무용교’ 등과 같이 한자어 ‘~교’를 쓴 것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1960년 5월 30일 옥류교 건설장을 찾아온 김일성이 ‘옥류교’라고 짓자고 하였다고 한다.<sup>60)</sup> ‘옥류교’라고 짓자고 하였던 시기가 김일성교시가 발표되기 이전인 1960년이라는 것이 이유가 될지는 모르겠다. 김일성교시 이후 새로 지은 다리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면 ‘제3보통교’라고 불렸던 다리를 ‘만수교’라고 바꾼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

(2)-②, ③은 각각 거리이름과 건물이름이고, (2)-④는 모란봉정각의 이름이다. 이 지명들의 위치를 찾아보니 모두 평양시에 소재하고 있다. 여기에 특징적인 점은 ‘류경호텔’의 경우 고려는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을 ‘류경’이라 불렀다고 하는 점에서 따오거나, 고구려 시대의 전설인 ‘온달장군’에서 그 이름을 따와서 ‘온달루’로 지었다는 점이다. 또한 ‘감찬정’은 고려 시대의 장군인 ‘강감찬’의 이름을 붙여 지은 것이라고 한다.

(2)-⑤의 경우 금강산에 있는 바위 이름인데 이는 군사용어로 지어진 것이 특징이다. (2)-⑥은 산, 저수지, 동굴, 폭포 등과 같은 자연지명에 해당하는데 금강산의 바위이름과 달리 꽃이나 과일, 그리고 밝은 이미지의 어휘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

60)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지어주신 이름: 옥류교,” 『문화어학습』, 제2호(1975).

(3) 지도자에 대한 충성을 나타내는 지명에는 (3)-①과 같이 지도자가 현지도를 간 곳이나 지도자의 은혜를 입은 지역 등에서 지도자에 대한 충성을 나타내기 위해 만든 지명이다. 또한 (3)-②는 금강산의 일부 지명을 새로 지은 것인데 마찬가지로 지도자에 대한 충성을 볼 수 있는 지명이다. (3)에 해당하는 지명은 모두 한자어로 지어진 것이 특징이다.

## 6. 나가며

지금까지 북한의 지명을 언어순화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해방 직후부터 언어에서 우리 고유의 것을 찾아내려 했던 북한의 언어순화운동은 1960년대에 이르러 전군중사업으로까지 이어진다. 이와 같은 시기에 지명조사사업 또한 진행되는데, 전국의 행정지명 및 자연지명의 유래를 조사하여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지명으로 구분하였다. 이후 우리 고유의 것이 아닌 지명을 걸러내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북한에서는 바꾸어야 할 지명이라 하고 이에 따라 새로 지은 지명이 생기게 된다.

이 글에서는 『문화어학습』에 실린 지명 관련 글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바꾸어야 할 지명과 새로 지은 지명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바꾸어야 할 지명은 외래적 요소, ‘봉건유교적, 종교미신적’ 요소, 비심미적 요소로 분류하였다.

언어순화의 대상이 되는 어휘 중 하나가 외래어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명에서도 여진말 지명과 일본말 지명을 몰아내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고, 다른 어휘에 비해 비교적 빠른 시기에 고쳐졌다. ‘봉건유교적, 종교미신적’이라는 표현은 북한 문헌에서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지명은 북한에서 지향하는 통치 이데올로기에 반하

는 지명이라 할 수 있다.<sup>61)</sup> 여기에 해당하는 동일한 지명이 남한에서는 아직 쓰고 있는 것과 매우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비שמ적 요소에 속하는 것은 이름이나 뜻이 좋지 않은 지명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가치 판단은 수령에 의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수령성과 무관하지 않다.

새로 지은 지명에는 민족적 요소, 통치 이데올로기와의 관련성, 유연성으로 분류하였다. 민족적 요소에는 고유어로 지은 지명이 해당하는데, 남한과 달리 행정지명에서 고유어 지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통치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지명으로는 북한의 주요 인물의 이름에서 딴 지명과 북한 사회가 추구하고 지향하는 사회의 모습을 담고 있는 어휘로 만들어졌다. 유연성은 지명의 일반적인 특성의 하나로 북한만의 특수한 명명법은 아니지만, 눈에 띄는 것은 북한의 산업과 관련된 지명 중 공장의 이름을 딴 지명이 많았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수령에 의한 지명에는 바꾸어야 할 지명과 새로 지은 지명이 함께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최고지도자의 말과 글에 의해 가치 판단이 내려지고, 이유 불문하고 배제하거나 수용해야 하는 지명이 여기에 속한다.

이 글은 『문화어학습』에서 실린 지명 관련 글을 분석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북한의 모든 지명을 다룬 것은 아니다. 하지만, 논의되었던 지명을 언어순화와 관련지어 고찰하는 것으로 북한 지명은 다른 순화의 대상이 되었던 어휘와 마찬가지로 언어순화에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이에 따라 북한 지명만의 특수한 명명법에

---

61) ‘봉건유교적, 종교미신적’이란 표현은 매우 범위가 넓어 조금 더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했으나 이 글에서는 포괄적으로밖에 다루지 못해 향후 과제로 삼기로 하였다.

대해 살펴보았다.

지명의 한계상 이 글에서는 『문화어학습』에 실린 지명과 관련된 글 중 ‘지명의 명명’ 부분만을 다루었으나 이후 ‘지명의 유래’를 분석하여 남한 지명과 북한 지명의 특징을 비교분석 하여 지명 속에 있는 사회언어학적 의미에 대해 고찰하는 것을 향후 과제로 하고자 한다.

■ 접수: 2021년 11월 1일 / 수정: 2021년 12월 6일 / 채택: 2022년 3월 2일

## 참고문헌

### 1. 북한 자료

#### 1) 단행본

박명훈, 『조선지명학』(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5).

박상훈·리근영·고신숙, 『우리나라에서의 어휘정리』(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6).

박영훈, 『조선지명편람: 함경북, 라선시』(평양: 사회과학원, 2002).

조창선, 『조선지명연구』(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5).

#### 2) 기타 자료

『문화어학습』(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68년 1호~2017년 4호(누락호: 1997년 3호, 2003년 2호, 2012년 1~4호, 2013년 1, 3, 4호, 2014년 1~4호, 2015년 1, 4호).

### 2. 국내 자료

#### 1) 논문

김기혁, “북한 지명관리 정책과 연구 동향 분석,”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9권 1호(2013), 14~30쪽.

김순배·류제현, “한국 지명의 문화정치적 연구를 위한 이론의 구성,” 『대한지리학회지』, 제43권 4호(2008), 599~619쪽.

김영배, “북한의 지명,” 『새국어생활』, 제4권 1호(1994), 146~172쪽.

도수희, “지명 연구의 새로운 인식,” 『새국어생활』, 제4권 1호(1994), 3~27쪽.

변영수, “량강도 지명의 의미론적 연구: 『겨레말큰사전』 제25차 남북공동회의 논의의 대상을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제59집(2017), 61~112쪽.

\_\_\_\_\_, “북한 지명의 후부요소 유형,” 『겨레어문학』, 제61집(2018), 329~362쪽.

서민정, “『로동신문』의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 분석,” 『현대북한연구』, 제17권 1호(2014), 7~48쪽.

- 이돈주, “땅이름(지명)의 자료와 우리말 연구,” 『지명학』, 제1권(1998), 163~185쪽.
- 이영택, “북한의 지명변혁과 지명의 유형,” 『아세아연구』, 제37권 1호(1994), 41~54쪽.
- 이영희, “지명 속에 나타난 북한 개성시의 자연경관특성,” 『대한지리학회지』, 제41권 3호(2006), 283~300쪽.
- 이희승, “지명 연구의 필요,” 『한글』, 제2호(1932), 46~48쪽.
- 주성재, “유엔의 지명 논의와 지리학적 지명연구에의 시사점,” 『대한지리학회지』, 제46권 4호(2011), 443~465쪽.
- 지상현, “지명의 정치지리학: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시 명칭 결정을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8권 3호(2012), 310~325쪽.
- 최석주, “북한의 지명 연구 : 북한 지리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8권 2호(2003), 235~251쪽.
- 최진무 외, “북한식 지명의 우리말 복원 방안에 관한 연구,” 『국토지리학회지』, 제51권 1호(2017), 59~67쪽.

On the North Korean Geographical Names  
from the Perspective of Language  
Purification: Focusing on the Contents of  
*Munhwa-eo hakseup*

Seo, Minjung (Keio University)

This article examines North Korean geographical names, and furthermore, tries to show that they are closely linked with the language purification campaign. Language purification campaign was launched in North Korea immediately after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rule, in order to remove remnants of Japanese language remaining in the Korean language. In this campaign, general and technical terms were generally reformulated, and of course, geographical names were no exception. However, so far, there has been no research on the study of North Korean geographical names under the theme of language purification.

In this study, the outline of North Korea's administrative division reorganization and the geographical names research project is described. In addition, articles on place names published in North

Korea's representative language magazine *Munhwa-eo hakseup* were examined. Based on data from 1968 to 2017, overall status of articles on place names is summarized, and methods of naming geographical places were analyzed and classified. Through this research, I confirm and detail the impact of the North Korean language purification campaign in the formulation of geographical names.

Keywords: North Korean geographical names, linguistic purism, language purification, *Munhwa-eo hakseup*